

수직계열화를 통한 종합식품업체로서의 발판 마련



△한국의 육계산업 발전의 기초는 계열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지로 출발한 (주)대연식품 전경.

(왼에는 한형석 사장)

□ 취재/함경숙 기자

우 리나라 육계산업에 ‘계열화’ 또는 ‘인티그레이션’이란 단어가 도입되면서 각양각색의 계열화사업이 선을 보였다.

그후 각 단체별, 업체별로 자기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 이용하여 발전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계열화사업의 정착이 곧 한국 육계산업의 발전과 직결됨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제 길을 가고 있는 몇몇 업체가 눈에 띈다.



◁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선한 닭고기의 유통은 물론 부위별 판매와 가공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계장으로 출발

대연식품(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지난 85년에 도계장을 설립한 이후 착실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계열주체이다.

3만수 규모의 도계장을 설립, 지난 86년부터 가동한 이후 인티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작년부터 위탁사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부터가 계열화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

회사의 조직은 1실4부로 기획감사실, 총무부, 영업부, 생산부, 그리고 인티사업부가 여기에 속한다.

현재 20여개 계약농가에서 40만수 규모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계처리후 2곳의 직영 영업소를 통해 직판하고, 또 외식업체, 대형 유통 전문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직영 영업소 운영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닭고기에 대한 반응, 기호도, 선호하는 부위 파악 등 시장조사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방식이다.

직영 영업소 운영

계약사육농가의 대부분이 2만수 이상인 기존 육계업자가 주축이지만 앞으로는 신규업자와의 계약은 물론 최신식 시설의 직영농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의 원자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철저한 사육지도로 생산비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때 사육농가에게는 kg당 150원의 사육수수료가 지급된다.

또한 사료요구율이나 육성율 면에서 계약기준 보다 성적이 우수한 농가에게는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사육농가의 사기양양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농업국가인 우리나라가 공업국으로 성장·발전했듯이 축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열화사업에 손을 댄 한형석 사장.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직업의식에서 비롯된 그의 의지는 남다른 점이 있다.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산업 분야에 다른 산업을 연계시켜 과감한 투

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육계업자들은 가격동락이 심한 한탕주의 육계경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옮기는데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사육 내지 계열화 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앞장 서 육계 계열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는 물론 계약사육농가에게 적정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써온 업체도 생겨났다.

이는 계약농가의 수익이 계열업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 발전은 현재의 1차산업 수준에서 3차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서대진 실장은 밝힌다.

초생추 자체공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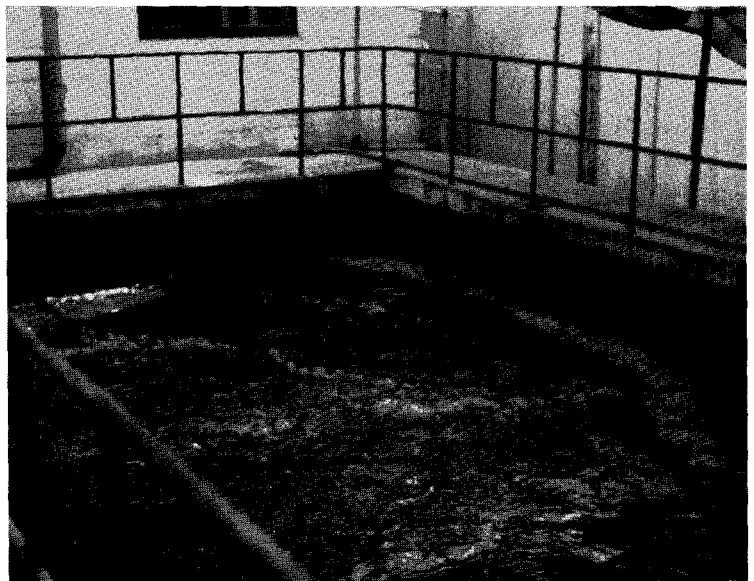
한편 계약농가의 양태를 두가지로 구분해 보면 신규업자들은 의욕적으로 덩벼들어 보다 철저한 사양관리와 세심한 경영분석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육성적도 우수한 편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육계생산자중 몇몇 농가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안주하려는 매너리즘에 빠져 생산성 면에서 다소 저하되는 사례도 있다고 인티사업부 사육담당 직원은 분석한다.

현재의 40만수에서 90개 농가의 180만수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티사업부 전담요원도 현재의 4명에서 1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초생추 자체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충북 진천에 주당 10만수 규모의 부화장 설립을 위해 토목공사를 끝낸 상태이다.

완벽한 폐수처리시설 갖춰



△환경오염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요즘 (주) 대연식품은 철저하고 완벽한 도계부산물 처리를 비롯하여 폐수 처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폐늘사건 이후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부각된 현실에 비춰볼 때 이전부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일 평균 도계수가 2만5천수인데 비해 도계부산물 및 폐수처리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다 품질좋은 닭고기 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해 계열화사업에 뛰어든 대연식품.

궁극적으로는 수직계열화를 완성, 대량생산 및 유통현대화를 수반하여 종합식품업체로서 당당히 자리굳히길 기대해 본다.